

## 돌아오는 대우 떠나가는 삼성

〈생산물량 일부 해외이전〉

광주 가전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대우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대우는 내실경영을 들어 해외 생산물량을 국내로 되가져 오는 반면, 삼성은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국내 물량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23일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지역 가전업계에 따르면 대우일렉은 내년에 해외물량 일부를 가져와 광주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세탁기 물량의 경우 올해보다 10% 증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우일렉은 지난해 냉장고라인에 이어 지난 7월 세탁기라인을 증산체제로 개편했다. 기존 10초당 1대를 생산하던

를 통해 공급하는 대우일렉 자체 브랜드 제품과 OEM 공급물량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스페인공장 등 일부 해외공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 광주공장이 이곳의 물량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 11년이 지나는 동안 해외투자에 한계를 보인다. 공장 유지, 물류비 등을 고려해 일부 해외법인의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우일렉은 중국(전자레인저)과 베트남·멕시코(냉장고·세탁기·전자레인저·청소기), 말레이시아(세탁기), 스페인(냉장고) 등 5곳에 해외 현지법인이 있다.

이같은 생산 확대에 힘입어 대우일렉은 올해도 흑자 경영이 예상, 3년 연속 흑자가 기대된다. 반면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청소기·세탁기 등의 생산물량을 점진적으로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외 현지화 전략에 따라 청소기의 경우 저가제품 모델을 중심으로 30~40%의 물량을 베트남공장으로 이전하고, 세탁기는 10~20%와 냉장고 일부를 멕시코공장으로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협력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똑같은 가전업체 인데 삼성과 대우의 행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 이전이 불가피한 점이더라도 협력업체와 지역경제의 미치는 파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이 달 세탁기 수출 물량이 전년대비 50% 이상 늘었다"며 "현지 유통업체



23일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안 기습 통과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광주본부 소속 회원들이 당사에 진입하기 위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野5당 거리투쟁·시민단체 촛불시위

### 한미 FTA 반발 확산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농민단체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4·8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2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풀고 본격적인 '비준 무효화' 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국회 과정 책임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특

히 어당이 진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대적인 대여(對興)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지난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발생한 '촛불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비슷한 악5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표자 연설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강행처리 후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들은 공동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며 결기를 다졌다.

앞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국회로

텐더홀에 모여 '한미 FTA 날치기 폭격 규탄대회'를 갖고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 무효화를 선언할 때까지 147만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동·박지경기자 song@

▶2면으로 계속

### 이금형 광주경찰청장 첫 여성 치안감

#### 전남청장에 안재경

경찰 역사상 첫 여성 치안감이 탄생했다.

경찰청은 23일 "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 직무대리를 광주지방경찰청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여성 치안감은 경찰 창설 66년 만에, 여경이 생긴지 65년 만에 처음이다. 〈인터뷰 18면〉

이번 인사에서 임승택 전남경찰청장은 경기경찰청 제2차장으로 자리 를 옮겼다. 또 무안 출신인 경찰청 정철수 대변인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 흥



이금형 청장 안재경 청장

의래 교통관리관이 생활안전국장으로, 김종양 혁안보기획단장이 외사국장으로, 정용선 정보심의관이 충남청장으로 각각 승진 내정됐다.

경찰은 이만희 치안비서관을 경북 청장으로 발령하는 등 치안감 15명의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알림

현지학생들과 수업하며 생생 영어 배워요

### 뉴질랜드 스쿨링 영어캠프



뉴질랜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정규수업을 함께 받는 정통영어 어학연수인 '2012 뉴질랜드 스쿨링 영어캠프'에 글로벌시대 꿈나루들을 초대합니다.

광주일보사는 뉴질랜드 어학연수 전문기관인 한뉴문화교류센터(www.hannew.org.nz)와 공동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지난 1월과 7월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어학연수는 타사의 해외기숙형 과외연수가 아닌 새 학기를 시작하는 뉴질랜드 학생들과 현지학교 교실에서 매일 정규수업을 받으면서 체계적인 영어실력을 키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또 현지 학생들의 집에서 매일 숙식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면서 실용영어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것도 이번 연수의 특징입니다. 특히 홈스테이 담당자와 비상연락망을 갖춘 24시간 연수생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연수비용도 대폭 낮췄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주최 : 광주일보사
- ◎ 주관 : 한뉴문화교류센터
- ◎ 연수학교 : Howick Intermediate School, Elmpark Primary School 등 6곳
- ◎ 신청마감 : 12월 25일
- ◎ 문의 : (062)220-0555, 018-693-6604

### 우암학원 창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 광신대학교

프레이즈 헤스티발

### 가스펠 찬양대회 3rd.

예 선 : 2011년 12월 3일(토) 오후 1시

본고 응원 3층 대예배실

참가신청 : 2011. 11. 7월 ~ 25일 ■ 참가팀의

\*자세한 내용은 본고 홈페이지를 참조 062)605-1114

입학 문의 www.kwangshin.ac.kr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깊은 바다의 깊은 보습을 전하는  
마린 프리스티지 뷰티 브랜드 리리코스-  
이제 광주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OPEN

LIRIKOS